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의 연출 방안 모색

-남해안 별신굿을 중심으로-

Invigorating Local Festival Directing

-Case Study of Namhaean Byeolsingut-

이기호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과

Ki-Ho Lee(egiho@ks.ac.kr)

요약

지역의 문화를 종합적으로 경험하는데 가장 적합한 모델로 단연 축제를 꼽을 수가 있다. 축제에는 개최되는 지역마다 지역 고유의 문화가 종합적이고 압축적으로 녹아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는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통합의 기능을 하여 공동체 사회성을 회복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또한 축제 개최로 인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외지의 여행자들을 불러들이는 데도 결정적으로 기능하여 관광산업으로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매년 7백여 개 이상씩이나 개최되는 전국의 축제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획적인 측면과 연출적인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축제의 원형적 성격과 형식을 바탕으로 기획되는 지역축제들에 대하여 연출적인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적용이 가능한 축제의 연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축제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전승되고 있는, 축제의 전통적인 유산인 남해안 별신굿에서 축제의 연출 특성을 밝히고, 연극의 연출기법을 적용하여 지역축제의 연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축제의 특성을 살리고 성공적인 축제를 연출해내기 위한 방안으로 축제의 제의형식, 공연형식, 놀이형식을 모티브로 한 연출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축제연출 | 연출 | 지역축제 | 제의 | 남해안 별신굿 |

Abstract

Local festivals quite often give their visitors and local residents a good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regional culture thoroughly. Also, the festivals empower the cultural pride and communal sociality, and create new jobs improving local economy. In Korea, more than 700 local festivals are held every year. Each festival is organized and operated upon all different purpose and mission. It is unfortunate, however, that many festivals fail to balance between making profits and accomplishing their purpose. Festival's marketing plan and content management should be cohesive, but at the same time, they also sh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festival's purpose and program. Especially in case of performance natured festivals, the role and function of festival directing should be more weighed on content management. Namhaean Byeolsingut is one of performance natured festivals, in which its archetype or primitive form is well maintained. This study observes the primitive form of NB from the director's viewpoint, and then provides a solid foundation on how those main characteristics of NB could be applied to invigorating local festival directing. The directing suggestions here are motivated by NB's ritual, performative, and play form.

■ keywords : | Festival Directing | Directing | Local Festival | Ritual | Namhaean Byeolsingut |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3년 12월 0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1월 10일

수정일자 : 2014년 01월 09일

교신저자 : 이기호, e-mail : egiho@ks.ac.kr

1. 서론

축제에는 개최되는 지역마다 고유의 문화가 종합적이고 압축적으로 녹아들어있다. 축제는 한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감정적, 지적인 것의 총체적인 복합물로서 예술과 문학을 포함한 생활방식, 인간의 기본권리, 가치체계, 전통 및 신앙을 포함하여 민족이나 특정지역의 주민이 공감하는 유무형의 현상일체를 나타낸다[1]. 그렇기 때문에 “지역축제는 지역주민들이 축제에 참여하여 함께 향유함으로써 정서적·심미적 욕구충족은 물론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기 때문[2]”이며,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통합의 기능을 하여 공동체 사회성을 회복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또한 축제 개최로 인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외지의 여행자들을 불러들이는데도 결정적으로 기능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우리나라의 축제는 각 지역마다 고유의 전통을 가지고 다양한 유형으로 개최되어 왔다. 지역축제의 유형을 보면 경제적 발전과 함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축제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축제는 다양화·복잡화되어가고 있다[3].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역축제는 양적 증가만큼이나 축제유형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국 시·도별 축제 총괄표』 발표를 통하여 전국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축제 개최 규모는 지방자치체가 시행된 1995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8년에 총 926개의 축제가 개최되어 최고조에 달했다. 그 후, 2009년에 921개, 2010년에 823개, 2011년에 763개가 개최되어 전국적으로 매년 많게는 920여개, 적게는 760여개 이상의 축제가 개최되어 왔다[4]. 이러한 축제의 개최 수는 우리나라의 지자체 단위 행정구역이 광역자치단체 16개, 기초자치단체 230개로 총 246개인 점을 감안하면 한 지자체에서 평균 3개 이상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축제의 개최 수는 양적으로 매우 많이 팽창되었다고 하겠다.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를 기획하고 개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그 중 공통적이며 주된 목적은 주로 지역 이미지 고扬과 주민 자부심을 높이고 지역의 특정상품을 부각시켜 관광객을 유인하고 주민에게도 즐거움을 주기 위해 축제를 행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유이다[5].

지역축제는 지역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정체성 제고와 외지인의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정해진 일자에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준비 개최하는 축제로 지역주민들의 총체적인 삶과 전통 문화적 요소가 잘 반영되어 있는 공동체적 성격의 행사[6]인데, 이러한 지역축제의 성격을 살리기 위해서는 축제의 본질과 취지에 부합하는 구성 및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지역에서 축제의 본질적 의미와 취지가 상실된 축제가 개최된다는 것은 축제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다는 반증이므로, 결국 축제는 실패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축제의 본질적 의미와 취지를 살려서 축제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해야 하겠다.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왔으며, 선행연구에서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각 축제유형에 따라 제시되는 활성화 방안으로는 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의 공동체를 위한 축제의 활성화 방안과 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하여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활성화 방안이 그 대표적이다. 강인원, 고호석(2003), 안혜원, 이민규(2010), 신중철(2012), 이원근, 김병준(2010)[7], 안형혜(2008) 등이 연구한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들을 요약하면, 지역의 공동체를 표방한 축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시설확충,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유도 방법 개발,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들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으로 축제장소의 접근성, 콘텐츠 개발, 부대시설 및 숙박시설 확충을 들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활성화 방안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축제의 형식이나 내용적 측면이 아니라 축제의 기획 및 운영분야에 국한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미 제시된 지역축제의 활성화방안, 즉 축제의

기획과 운영적 측면에 더하여 축제의 내용과 형식적인 면에서의 활성화 방안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축제의 내용과 형식적 측면에서의 선행연구로는 이용화, 송형중, 김영석(2007)의 저서 『성공적인 축제연출』을 들 수 있는데[8], 세계적인 축제의 성공사례들을 제시하며 축제를 성공적으로 연출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종합적인 운영 및 기획시스템을 조건으로 제안하는데 그쳐 축제의 연출방안은 제외되어 있다.

매년 7백여 개 이상씩이나 개최되는 전국의 축제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획적인 측면과 연출적인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지역축제가 개최목적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형식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개최되므로 축제의 유형에 따라 연출의 역할과 기능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축제의 원형적 성격과 형식을 바탕으로 기획되는 유형의 지역축제에 대하여 연출적인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적용이 가능한 축제의 연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축제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전승되고 있는, 축제의 전통적인 유산인 남해안 별신굿을 직접 참관[9]하여 축제의 원형을 고찰하고, 축제의 연출 특성과 핵심요소들에 연구의 연출기법을 적용하여 축제의 연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남해안 별신굿의 축제 원형

1. 남해안 별신굿

남해안 별신굿은 1987년 7월 중요무형문화재 제82-라호로 지정되었으며, 예능보유자로 정모연과 박복률이 지정되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사유로 남해안 별신굿이 제의를 중심으로 하는 축제적 기능, 통합적 기능, 정치적 기능, 예술적 기능 등이 우리 고유의 공동체적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해안 별신굿은 현재 경상남도 거제도를 중심으로 통영시 일대의 어촌과 한산도, 사랑도, 육지도, 갈도, 죽도 등지에서 이루어지는 이 지역 어촌 마을의 공동체이다[10].

남해안 별신굿은 마을공동체로서 우리 고유의 공

동체적 신앙으로 그 내용면에서는 어촌민들의 생활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남해안 별신굿의 굿거리 순서에 따라 굿의 목적과 신가내용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별신굿은 조상님께 송구영신과 마을의 평안과 화합을 빌도록 하는 하나의 마을 축제이다. 별신굿은 개인의 병을 고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는 결코 굿을 주도하지 않는다. 마을 전체의 상징인 조상신, 즉 골맥이신을 비롯하여 바다의 용왕신, 마을 입구를 지키는 장승신, 가망, 제석, 손님, 군용 등의 신령과 원령, 잡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를 행하는데, 이 제의를 통하여 풍어기원, 마을안녕, 수로(水路)안전, 주민의 무병장수를 기원한다[10].

굿을 하기위해 만들어진 마을 조직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제의가 끝나면 해체된다. 이러한 조직 또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매년 또는 몇 년마다 굿이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의 성격은 반영구적인 특성을 띠게 된다. 이러한 집단이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마을전체의 별신굿을 주관하기 때문에 마을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게 만든다.

2. 남해안 별신굿의 형식과 내용

남해안 별신굿을 하는 지역에서는 무당을 ‘승방’이라고 하고 승방은 대모(大母)와 소모(小母)로 구분한다. 약사는 양중이라 하며 약사나 무당끼리는 ‘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굿판의 유지, 굿판의 장식, 굿 음식 장만 등을 책임지고 또 승방을 가르치고 양성하는 일을 맡는 이를 ‘대사산이’라 한다. 이들은 모두 세습무 집단의 출신으로 세습무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이 곧 남해안 별신굿패를 구성한다. 남해안 별신굿의 사제부(司祭巫) 구성은 대모 1명, 소모 1~2명, 약사 5~7명 정도이다. 소모는 굿의 전반적인 기능을 지닌 경우가 드물어서 대모가 굿거리 전체를 사제하게 된다.

남해안 별신굿의 제의 절차는 16거리 내외로 이루어지는데, 마을마다 더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 큰 굿은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기도 하고, 작은 굿은 하루만에 끝나기도 한다. 큰 굿으로는 3일 동안 행하는 굿이 가장 대표적이데, 굿거리 절차는 첫째 날, 들맞이당산

굿, 큰대풀이, 굿장모집 부정굿을 하고, 다음날 일월맞이, 골뻘이굿을 하고 본청에 와서 부정굿, 가망굿, 제석굿, 용왕굿, 선왕굿, 손굿, 고금역대, 탈놀음을 한다. 셋째날에는 황천문답, 축문, 큰대풀이, 환생탄일, 시왕탄일, 대신풀이, 군웅굿, 시석(거리굿 또는 송신굿이라고도 함)의 순서로 굿을 끝낸다.

남해안 별신굿은 미리 짜여진 사설에 따라 진행된다. 별신굿은 세습되어 온 무당 가계에 의해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신가사설로 연회되는데, 굿의 목적과 내용에 맞추어 가창을 한다. 신가사설의 내용은 신의 이야기를 인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조상신과 신령들을 불러놓고 마을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인간의 희로애락이 포함되어 있다.

별신굿은 크게 보아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준비과정과 종결과장이 있고, 그 사이에 본과장으로서의 거리과장이 자리한다. 준비과정의 제차는 주당물림, 부정, 청배, 진적 등으로 짜여 있는데, 부정한 것, 잡귀잡신을 물리치고 제의장소를 정화하고 모든 신령과 조상을 청하여 모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과장은 여러 성격이 다른 무의 신령들을 각기 그들의 거리에 모시는 내용으로, 굿의 중심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종결과장은 보통 뒷전으로 불린다. 뒷전은 잡귀잡신을 놀려드리는 제차로서 구성되어 있다. 굿의 앞과 중간부분은 실제 조상과 신령들을 위한 거리이다. 그래서 잡귀잡신은 거기에 끼어들 틈이 없다. 그러나 이 뒷전에서는 이들과도 성격에 따라 모셔지고 춤과 노래, 제담과 음악, 그리고 술과 음식으로 대접받아 되돌려 보내지게 된다[11].

3. 축제의 성격과 기능

남해안 별신굿에서 나타나고 있는 축제 원형을 고찰하기 위하여 남해안 별신굿의 형식과 내용에서 축제의 성격과 기능을 고찰하였다.

3.1 축제의 성격

축제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문화, 인간과 신, 인간과 우주의 교류를 지향하는 의사소통양식이자,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집단행위

의 한 형태로 이어져 온 대표적인 문화적 표현양식이다. 다양한 문화현상 중에서 인류의 원형적 심리가 가장 잘 표출되어있는 문화에 속하는 축제는 그 어떤 문화현상보다 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고차원적 욕구라고 할 수 있고 축제는 여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왔다[12].

현대의 축제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첫째, 축제는 일상의 억압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통풍구 역할을 한다. 둘째, 축제의 시·공간은 일상의 시·공간과 극히 대조되므로 축제는 환상(fantasy)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과장성과 삶에 대한 긍정성을 고양시킨다[13]. 축제의 연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축제의 성격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3.1.1 제의성

축제의 원형은 아득한 태고의 제의로 돌아간다. 신화적 세계의 회귀에 의해 원초적인 카오스로 돌아가는 제의 형식에 축제의 요람이 있다. 그러므로 축제는 신화와 관련되어 있고 원초적 제의와 만나는 것이다[14].

축제는 현실과는 다른 시·공을 초월한 상태의 성스런, 세속적인 삶과는 다른 장이다[15]. 따라서 축제는 그 자체로서 제의이며, 축제의 절차는 제의절차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축제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놀이의 상관관계 아래, 제의와 축제의 상관성으로 존재하고 있다[14]. 별신굿을 하게 되면 마을에서는 부정한 사람들을 골라내어 마을 밖으로 내보내고 깨끗한 사람들만으로 굿을 행하며, 가족들까지도 울음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쓴다. 별신굿이 시작되면 온 마을이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공간에서 비일상적이고 신성한 공간으로 전환되며, 시간 또한 일상으로부터 비일상적인 시간으로 전환된다. 여기서 비일상적인 공간과 시간은 다른 아닌 제의의 공간과 시간을 뜻한다. 별신굿이 시작되어 참여자들은 비일상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제의적인 상태를 경험하고, 별신굿이 끝남과 동시에 비일상적인 시간과 공간은 일상 속으로 환원된다. 참여자들 또한 일상생활 속으로 환원되는 데 이러

한 과정 또한 제의의 과정인 것이다.

3.1.2 탈일상성

축제는 축제기간 동안 참여자들을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일상생활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일탈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축제의 본질이다 [14]. 따라서 참여자들은 이 기간 동안 사회적 활동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신성한 일탈의 해방감을 맛보며 신성한 즐거움을 만끽한다. 축제의 시간은 세속적인 질서의 시간, 일의 시간과 엄격히 분리된 신성의 시간이다[15].

곳판이 벌어졌다 하면 동네가 퀘스레 부산하고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 축제에 빠져든다. 풍악이 요란하고 음식이 푸짐하며 볼거리가 대단하다[11]. 별신굿이 행해지고 있는 기간 동안 마을 사람들은 신성한 제의를 행하면서도 제의 안에서 음주가무를 즐기며 난장의 묘미를 즐긴다. 이른바 무질서 속의 질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축제의 묘미이다.

별신굿이 시작되면 마을은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굿의 축제적 환경으로 전환된다. 별신굿은 장소와 시간대에 따라 다른 내용의 굿거리가 행해지기 때문에 각 굿거리가 행해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굿의 환경 속으로 전이되고 마을 전체가 축제의 장소로 변해있으므로 마을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게 된다. 마을 사람들은 별신굿이 행해지는 기간 동안 일상에서 벗어나서 일상 밖에서 행해지고 있는 별신굿판에서 흥분된 상태의 별신굿 분위기에 압도된다. 별신굿이 해마다 혹은 2~3년 마다 지속적으로 행해져 오기 때문에 주민들은 굿의 진행상황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은 음주가무와 난장의 축제적 환경으로의 탈일상을 당연시 받아들이며, 오히려 축제적 환경의 적극적 참여자가 되길 원한다. 축제가 반복되면 될 수록 참여자들에게는 축제에 대한 사전지식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쉽게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1.3 커뮤니티

축제의 진정한 묘미는 참여자들이 주(主)와 객(客), 남과 여,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분이 없는 상태, 궁극적으로 공연자와 관객의 구분이 없는 상태, 즉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상태인 커뮤니티(communitas)의 상태를 경험하는 일이다. '커뮤니타스'란 어떤 사람이 지니는 구실이나 지위의 특징을 지워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인간이 서로 마주하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16]. 축제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커뮤니티 상태를 경험하면서 참가자들은 신성한 즐거움을 유희하게 된다.

별신굿은 마을 사람들의 자발성에 의해 주도되고 마을 사람들 스스로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교감된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게 된다. 이는 마을축제라는 놀이적 특성에서 비롯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신굿이 행해지고 있는 동안은 마을 전체가 축제의 장소로 인식되며, 마을 사람들 또한 사회적인 신분이 무시되고 서로를 별신굿의 일원으로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커뮤니티의 전이 상태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별신굿이 끝나고 나면 다시 사회적인 개인으로 환원하게 된다. 말하자면 커뮤니티의 상태는 별신굿이 행해지는 기간에만 이루어지는 전이영역이고, 별신굿이 끝나면 일상생활로 환원된다.

3.1.4 놀이성

축제가 사람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것은 바로 축제의 놀이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축제기간 동안 참여자들에게는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놀이판이 제공된다. 축제가 시작되면 생활공간은 제의적 놀이 공간으로 전환되고, 참가자들은 축제가 펼쳐지는 장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자연적으로 제의적 놀이의 환경 속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호이징하에 의하면, 놀이는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행위로 어떤 물질적인 이해관계도 없고,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바라지 않으며, 또한 그 행위는 질서정연한 어떤 고유의 고정된 법칙에 따라 고정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놀이라는 자유로운 행위는 사회적 단체의 형성을 촉진시킨다고 밝혀놓았다[17].

축제는 일상사의 일이 존재하는 시기가 아닌 세속과의 분리에서 극의 흥분상태에서 자발적인 자유참여에 의해 신과 인간이 일치를 맛보는 신명이 존재하는 놀이 특성을 갖는다[15].

별신굿을 행하는 마을에서는 마을의 공동체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별신굿이라는 놀이판을 마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축제의 탈일상적 성격에서 나타나듯이, 축제가 펼쳐지는 장소는 더 이상 사회적 활동의 장소가 아니며, 축제가 진행되는 시간은 더 이상 사회적 활동 시간이 아닌 것이다. 축제의 장소와 시간은 바로 놀이의 장소와 시간인 것이다.

3.1.5 공동체성

축제는 공동체 사회에서 공동체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획되고 행해진다.

남해안 별신굿이 행해지는 장소는 다름 아닌 마을이며, 별신굿의 기획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마을공동체가 주관하고 있다. 별신굿은 개인의 병구완이나 사적인 목적으로 행하지 않고, 마을사람들과 생활터전에 대한 전체적인 기원이나 염원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데서 공동체적 성격이 바탕에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축제의 장소는 평상시에는 생활공간으로 축제기간 동안에 한하여 축제의 공간으로 전환된다. 별신굿이 행해지는 마을 혹은 섬은 대부분 어업을 생계로 하기 때문에 이들의 일상생활 자체가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게 되어 있다. 어업의 특성이 어촌계에서 주관하여 바다에서 해산물을 공동으로 채취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동체 생활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인 공동체 생활을 더욱 결속시키려는 목적에 의해서도 해마다 날을 정하여 별신굿을 행하는 것이다.

3.2 축제의 기능

3.2.1 사회적 메카니즘

축제가 예로부터 전승되어오는 이유는 축제의 사회적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삼국시대 이전의 고대국가에서 부족이나 부족연맹을 이끌던 지도자는 정치적 권력과 사제적 권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의 지도자는 제사장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부족을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제의를 행하였다. 제의가 행해지는

기간 동안 부족민들은 공동체 생활에 바탕을 둔 제의와 놀이를 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공동체의 사회적 재통합이 이루어진다. 삼국시대 이후 정치적 권력과 사제적 권력이 분리되어 정치지도자와 사제지도자가 분리되지만, 제의의 사회적 기능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지도자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의의 사회적 기능이 더욱 요구되었다.

축제의 사회적 메카니즘은 지역축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가자들은 축제기간 동안 일탈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정화하고,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통합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남해안 별신굿은 마을에 따라서 매년 혹은 2~3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 사회적 메카니즘 기능의 필요성에 의해서 개최된다고 할 수 있다. 별신굿이 끝나고 나면 별신굿이 행해지는 동안에 느꼈던 제의적인 공동체 경험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쳐서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의식을 더욱 끈고히 하게 되고, 심리적으로는 마음의 정화 작용을 거친 후의 상태로 일상생활에 임하게 된다. 또한 별신굿이 행해지는 동안에 기원했던 것들에 의한 희망이나 염원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전념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 여파는 남해안 별신굿의 궁극적인 기능이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별신굿을 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생활의 정체성을 재인식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통합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3.2.2 정화의 기능

축제는 참가자들을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제의적 환경에 처하게 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온갖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다. 제의가 행해지고 있는 신성한 장소에서 신성한 제물과 가무를 행하면서 겪는 신성한 즐거움은 바로 참가자들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신성관념으로 작용한다.

남해안 별신굿은 정화작용으로부터 시작된다. 별신굿을 시작하기 위해서 마을을 정화하고, 마을 사람들도 또한 정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신굿이 행해지는 장소와 대상이 성스러워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신굿의 시작의 알림으로 마을을 정화토록 하고 일월맞이는 헤뜨기 전에 그 마을에서 가장 해가

먼저 비치는 장소를 설정함은 가장 신성시된 장소에서부터 곳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일단 별신굿이 시작되고 나면 곳이 행해지는 마을 전체가 제의적 공간이면서 하나의 놀이 공간으로 탈바꿈되며 마을 사람들은 축제적 분위기에 젖게 된다.

정화작용은 축제의 일환으로 보다 더 직접적인 형식으로 구체화되기도 하는데, 다름 아닌 연극의 활용이다. 축제에서는 보다 더 직접적인 정화작용의 일환으로 연극을 통하여 사회적인 관계를 전복시킨다. 사회적인 신분과 계층의 상하관계가 전복된 구조의 연극 공연을 통하여 지배계급의 허위를 풍자하고, 해학을 즐기으로써 민중들이 주인공이 되는 장을 제공한다. 이를테면 피지배자가 지배자를 희롱하는 가운데 양반, 선비와 과거승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종교적 지배계급의 허위를 우스꽝스럽게 풍자한다. 이처럼 사회적 신분과 계급을 전복시켜 풍자함으로써 민중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배당해 왔던 억압을 해소시켜 감정을 정화하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타부가 축제기간 동안은 허용되고 보장되는 것이다.

3.2.3 공동체 정체성 회복

축제의 사회적 기능의 결과물로서 공동체 정체성의 회복을 들 수 있다. 축제에는 지역성과 문화성이 동시에 녹아들어 있으므로 공동체 정체성 회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정체성을 고취하게 하는 요소로는 지역성이 있으며, 문화성은 축제의 문화·예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이를 참가자가 경험하게 함으로써 문화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요소이다[18]. 축제 안에서 그 지역과 지역의 문화가 종합적이고 압축적으로 제시됨으로써 지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이 확립되고,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이 고취된다. 축제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서로 단합하고 협력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만든다.

축제는 엄숙하고 진지하고 경건한 의식이면서 자유롭고 즐거운 해방의 난장판 의식이 겹쳐지는 행사이기도 하다. 그렇게 축제는 성스러움과 놀이처럼 가볍고 신명 들린 세속스러움이 어우러지는, 어쩌면 가장 모순

되는 상극적 양면의 행사인 것이다. 시작은 거룩하고 나와 너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우리 공동체에게 삶의 리듬을 실감나게 만드는 것이 축제의 기능이다. 근본적으로 축제는 나의 성찰이라기보다 우리의 일체감과 공감, 공명과 귀속감, 하나 됨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집단적인 어울어짐을 일컫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축제는 집단의 이미지를 대표한다. 축제는 한 집단의 꿈과 소망과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다[14].

III. 축제의 연출 방안

축제의 연출 방안은 축제의 성격과 기능에 따른 축제의 유형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르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축제의 유형에 따라 축제의 형식이 다르게 구성될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축제의 원형에 바탕을 둔 유형의 축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출 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축제의 원형을 남해안별신굿을 중심으로 축제의 성격과 기능을 고찰하였고, 내용과 형식을 바탕으로 축제의 고유한 형식을 알아보았다.

남해안별신굿의 축제 원형은 제의 형식, 공연 형식, 놀이 형식의 세 가지 형식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해안 별신굿은 마을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축제이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별신굿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하여 사제무 일행을 청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의와 함께 신나는 공연과 놀이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을 만들어주길 원한다. 말하자면, 마을 사람들은 사제무 일행을 제의를 행하는 공연 및 놀이집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제의를 행하면서도 사제무 일행의 예술적인 가무와 재담 등을 즐기다가 흥에 겨워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축제의 원형은 제의 형식, 공연 형식, 놀이 형식의 세 가지의 고유한 형식에 담겨있는 점에 착안하여 이 세 가지 형식으로부터 축제의 연출 모티브를 발견하여 축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축제의 연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제의 형식

제의란 어떤 표현이며, 극적인 표현이며, 형상화이며, 대리적 현실화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축제 때에는 공동체가 봉헌의식을 통해서 자연적인 삶속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사건들을 경축한다. 그러한 의식 속에서 계절의 변화, 별자리의 바뀔, 풍요, 출생과 삶과 죽음이 표현된다[17].

축제의 기원은 고대의 제의에서 출발한다. 그 종교적 기능으로 경건, 화합, 정화, 축복, 구원, 환희에 이르는 개체와 공동체의 자기 확인, 귀속성의 확인, 미래의 안녕 질서에 대한 확인은 분명한 것이다[14]. 축제의 기원이 제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축제는 그 자체로서 제의의 형식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아놀드 판 겐넵은 ‘통과의례를 분리(separation), 전이(transition), 통합(incorporation) 혹은 재통합(reaggregation)의 세 단계로 구분[19]’하였는데, 축제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은 통과의례의 단계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축제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일상생활과 분리되고, 축제 안에서 전이과정을 겪게 되며, 축제가 끝나면서 다시 사회인으로 통합되는 제의적 과정을 겪는 것이다.

남해안 별신굿은 별신굿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분리제의, 그리고 별신굿이 행해지고 있는 과정에서의 전이제의, 마지막으로 별신굿이 끝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재통합제의의 과정을 겪는다. 분리제의는 마을 사람들이 굿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거쳐 굿장모와 고원을 선출하고, 대모에게 별신굿을 청하고 나서 제의 음식을 준비하고 마을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마을을 청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을 사람들 또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가족들까지도 한 곳에 모아 별신굿 제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마을 사람들은 일상에서 탈일상화로의 분리를 시도한다. 일상과의 분리 과정에 일어나는 일련의 행위의 성격은 비일상적인 행위로서 경건하고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 모든 세속스러움을 제거하여 신성함을 이끌어 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전이제의는 별신굿이 행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별신굿이 행해지고 있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은 일상에서 벗어나서 별신굿이라는 제의 영역으로 탈일상화된 영역 안에 있게 된다. 그리고 별신굿이 끝나고 나면 마을 사람들은 탈일상화된 상태에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된다. 바로 일상생활로 재통합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해안 별신굿은 제의적인 축제이며, 제의적 연출로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축제를 분리, 전의, 재통합의 통과례 형식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의적으로 연출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축제의 전 과정을 제의적 구성을 바탕으로 연출함으로써 축제의 기원에서 나타나는 종교적 기능과 그에 의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공연 형식

공연의 역사는 고대 제의로부터 유래되었고, 제의로부터 파생된 형식이 공연인 탓에 제의와 공연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공연의 유래는 서양과 동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희랍연극이 디오니소스축제가 제의에서 비롯되었으며, 동양의 연극 또한 고대제의로부터 비롯되었음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축제는 시간과 공간의 극화(劇化)이다. 그런 축제의 시공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충만해지고 다시 활력을 찾는다[14]. 축제가 공동체의 제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축제는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한, 구성원들의 삶에 기반한 사회극으로서의 형태를 지니게 되었는데, 빅터 터너는 사회극을 위반, 위기, 교정행동, 대단원의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16]. 부연하면, 일상생활의 질서에 어떠한 위반이 일어나게 되면, 그로 인해 위기가 고조되고, 사람들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교정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교정행동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대단원으로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된다. 빅터 터너의 사회극의 네 단계는 프레이 타그(G. Freytag)가 플롯의 5단계로 밝혀놓은 ‘도입부, 상승부, 절정, 하강부, 대단원’의 기본구조와 다르지 않다. 리처드 웨크너는 공연의 전 과정이 7단계를 거쳐서 완성된다고 했는데, 트레이닝(training), 워크숍(work-shop), 리허설(rehearsal), 워밍업(warming-up), 공연(performance), 냉각(cooling down), 여파(aftermath)의 단계이다[20].

공연의 7단계는 준비과정, 공연과정, 마무리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준비과정은 트레이닝에서부터 워밍업 단계가 포함되고, 공연과정은 공연단계로 일원화되고, 마무리단계는 냉각, 여파단계이다. 리차드 웨크너가 제시한 공연의 7단계의 기본 구조는 아놀드 판 겐넵의 통과례와도 관련성을 가지며, 빅터 터너의 사회극 4단계, 프레이타그의 플롯의 5단계와 다르지 않다.

남해안 별신굿은 전체적으로 리차드 웨크너가 제시한 공연의 7단계를 적용받는다 할 수 있다. 굿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트레이닝, 워크숍, 리허설을 하게 되고, 굿을 행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준비를 한다. 그리고 굿을 한 후 뒤풀이로서 냉각단계를 거치며, 모든 굿이 끝난 후에 굿의 목적인 기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염원이 여파로 남는다. 세부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한 거리는 청신(淸神, 신모심), 오신(娛神, 신놀림), 송신(送神, 신보냄)의 기본구조로 되어있다. 별신굿의 전체적인 구조는 공연의 구조이면서 형식에 있어서는 연극의 기본구성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부적인 굿거리의 구성에는 연극으로 공연되는 거리도 있는데, 관객들에 의해 직접 만들어지는 헛굿이 그것이다. 사제무 일행이 굿을 하다가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약 5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는데, 이때 마을 사람들이 주도하는 헛굿이 행해진다. 마을 사람들이 주재하는 헛굿은 무당이 주재하는 굿에는 못 미치지만 사설이나 춤에서 대단한 실력들이 발휘된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굿을 접해왔기 때문에 굿 사설이나 춤에 익숙해져 있는 탓이다. 헛굿이 진행되는 동안 사제무 일행은 휴식을 취하지만, 때로는 헛굿을 구경하는 관객이 되기도 한다. 별신굿의 진행순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큰굿을 하게 되면 으레 헛굿을 하게 되고, 사제무 일행도 이를 수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헛굿이 별신굿의 한 부분이 되어 버렸다. 별신굿의 마지막 거리인 띠뱃놀이는 사제무 일행의 공연행위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의 장면을 만들어냄으로써 완성시키는데, 남해안 별신굿은 굿거리에 따라서 사제무 일행이 공연하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여 완성하는 장면도 있다.

남해안 별신굿에서 공연자는 대모와 악사들이다. 이

들이 직접적으로 굿을 주도해 나가고 사설에 의한 가무와 즉흥적인 재담으로 공연을 하게 된다. 공연자는 굿이 행해지는 굿청에서 소리와 춤, 그리고 대사를 행하는 무녀와 악사를 훈련시키고 학습을 시키는 대사산이가 악사석에 앉아서 직접 연주를 행하면서 무녀와 대사를 주고받기도 하고, 같은 악사들 또한 대사를 주고받기도 하고 추임새를 넣기도 한다. 큰 굿을 할 때는 중광대·할미 광대놀이로 탈놀음과 비바가지·적덕이놀이 등의 인형극이 삽입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놀이는 제의적이기보다는 그 자체가 연극이므로 공연자들이 연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해안 별신굿에서의 공연자는 대모와 악사들로 이루어진 사제무 일행으로 볼 수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관객이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해안 별신굿의 기본적인 구성이 연극의 구성과 비슷하고, 세부내용에는 연극이 포함되어 있기까지 하다. 이렇듯 남해안 별신굿과 같은 전통적인 축제에서는 공연자와 수용자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교감을 둔구어서 축제를 보다 더 흥미롭게 하기 위하여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여 공연형식으로 발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축제 연출의 모티브를 연극 또는 공연형식에서 발견할 수 있다. 축제에서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행위자가 있고, 이를 보고 즐기는 수용자가 있기 마련이다. 관객(구경꾼)을 대상으로 행위를 보여주는 행위자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교감이 공연의 본질이고, 행위자와 관객 사이의 상호교감 상태를 만들어서 이를 통하여 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축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극연출기법이나 공연연출기법을 축제 연출에 적용하여 축제의 연출기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3. 놀이 형식

남해안 별신굿은 전반적으로는 제의 형식을 따르며, 부분적으로는 공연 형식으로 행해진다. 그런데 축제의 원형은 제의 형식을 따르면서도 제의에 간하지 않고, 공연 형식으로 행해지면서도 공연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축제가 이러한 열린 구조를 갖는 이유를 축제의 놀이성에서 찾을 수 있다.

놀이는 자유로운 활동, 분리된 활동, 확정되어 있지

않은 활동, 비생산적인 활동, 규칙이 있는 활동, 허구적인 활동 등의 여섯 가지 특성들을 갖고 있으면서, 놀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아곤(Agon, 경쟁), 알레아(Alea, 우연, 요행), 미미크리(Mimicry, 모방, 흉내내기), 일링크스(Illinx, 현기증, 착란) 등의 네 가지로 놀이의 영역에 속한다[21]. 이와 같은 놀이의 여섯 가지 활동과 네 가지 영역은 축제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축제는 놀이의 여섯 가지 특성에서 나타나듯이, 상호간에 약속된 규칙 안에서 일상생활과는 분리되어 있으면서, 비생산적, 허구적이며, 또 결과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자유로운 활동이므로, 참가자들을 놀이의 세계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다.

놀이의 특성으로 인해 남해안 별신굿은 제의를 행하지만 참가자들은 제의를 심각하거나 엄격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공연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놀이성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것은 축제의 근원적 힘이 바로 놀이와 놀이 형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축제의 연출은 반드시 놀이와 놀이 형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놀이와 놀이 형식은 연출가가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연출요소이기도 하다. 놀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네 가지 수단은 연출가가 직접 다루어야 할 연출요소이면서 연출방법이 되기도 한다. 축제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놀이와 놀이 형식에서 모티브를 얻어야 함이 분명하므로, 놀이 중심의 인터랙션을 바탕으로 한 연출 방식을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놀이성은 축제의 성격과 기능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속성이므로 놀이 형식을 바탕으로 한 연출방법은 공연자와 수용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성공과도 직결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목적이 축제의 놀이적 측면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세계 실험극연출가들이 공통적으로 현대연극이 잃어버렸던 원초적 공연성을 원시연극의 제의와 놀이로부터 회복하고자 했던 연극실험에서 보여지듯이 연출에서 놀이성은 공연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발리의 축제에서 원초적 공연성을 발견하여 집필된 앙투안 아르토의 잔혹연극론에서 영향을

받은 실험극연출가들의 관심은 연극에서 공연으로, 공연에서 축제로 옮겨가게 되었고, 때문에 이들의 공연에서 제의와 놀이 중심의 축제적인 연출 특성이 두드러지게 되었던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할 것이다.

IV. 결론

전통적인 마을축제의 형식으로 오늘날까지 행해지고 있는 남해안 별신굿에서 발견된 축제의 원형을 통하여 전국의 지역축제들 중에서 축제의 원형적 성격과 형식 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유형의 지역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축제의 연출방안을 모색하였다.

본고에서는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축제의 기획, 운영 면에 더하여 축제의 연출적인 면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선행연구에서 배제되었던 축제의 연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축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축제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토록 하였다.

축제의 고유한 성격과 형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남해안 별신굿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과 필자가 직접 남해안 별신굿에 참여하여 내용과 구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축제의 개념, 성격, 기능 등을 분석해내었다. 그 결과 축제의 성격은 제의성, 탈일상성, 커뮤니티스, 놀이성, 공동체성으로 분석하였고, 축제의 목적인 축제의 기능이 사회적 메카니즘, 정화의 기능, 공동체 정체성 회복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축제의 특성을 살리고 성공적인 축제를 연출해내기 위한 방안으로 축제의 제의형식, 공연형식, 놀이형식을 모티브로 한 연출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축제를 기획함에 있어서 축제의 연출방안으로 제시한 세 가지 형식을 모티브로 하여 지역문화와 창의성을 가미한 새로운 축제연출을 모색할 수 있겠다. 첫째, 남해안 별신굿에 나타난 제의적 형식인 분리, 전이, 재통합의 통과례 구성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의성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 성격의 연출을 도모할 수 있겠으며, 둘째, 별신굿의 굿거리 기본구성과 빅터 터너의 사회극의 4단계를 바탕으로 하는 공연형식을 모티브로

축제를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는 완결된 구성으로 축제를 종합적인 예술작품 또는 종합적인 문화축제로 연출을 할 수 있겠으며, 셋째, 놀이와 놀이형식을 바탕으로 자칫 행사위주로 경직될 수 있는 형식적인 면을 탈피토록 하여 참여자들에게 자유로움과 오락을 제공하고, 이로서 공연자와 수용자가 분리되지 않고 서로 어우러지는 상호교감을 추구하는 공동체적인 축제로 연출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상의 세 가지 형식의 연출모티브는 축제의 성격에 따라 선택되어질 수도 있으나, 축제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형식이 종합된 축제연출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리하여 축제의 성격을 바탕으로 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에 대하여 사회적 매카니즘, 정화, 공동체 정체성 회복의 고유한 기능으로 작용하여 축제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데 축제의 연출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인원, 고희석, “문화관광축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제5권, 제1호, pp.9-28, 2003.

[2] 서철현, 고희석, “지역축제 개최지 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지역애호도의 영향관계”, 관광·레저연구, 제23권, 제1호, pp.447-466, 2011.

[3] 안혜원, 이민규, “지역축제 활성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6호, pp.378-385, 2010.

[4] <http://culturestat.mcst.go.kr/>

[5] 신중철,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에 관한 연구”, 강원논총, 제3권, 제1호, pp.1-26, 2012.

[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2006.

[7] 이원근, 김병준,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축제 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사회논문집, 제35권, 제2호, pp.33-44, 2010.

[8] 이용화, 송형중, 김영석, 성공적인 축제연출, 연극

과 인간, 2007.

[9] 2003년 5월 15일~17일 3일간 통영시 육지면 일원에서 남해안별신굿을 저자가 직접 참관함.

[10] 김선풍, 남해안별신굿, 박이정, 1997.

[11] 조홍윤, *巫와 민족문화*, 민족문화사, 2000.

[12] 조성애, “문화정체성과 축제”, 한국프랑스학회 학술발표회, pp.101-110, 2007.

[13] 김차동, *지역축제 만족요인이 참가자의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14] 이상일, *축제의 정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8.

[15] 고원규, “전통축제의 제의성과 놀이에 관한 연구”, 진주전문대학논문집, 제15집, pp.353-372, 1992.

[16] 빅터 터너, 이기우, 김익두 역, *제의에서 연구로*, 현대미술사, 1996.

[17] J. 호이징하, 김윤수 역, *호모루덴스*, 도서출판 까치, 1993.

[18] 안형혜, “지역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기획 방안의 모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12호, pp.168-175, 2008.

[19] A. 판 개념, 정경수 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85.

[20] 리차드 웨크너, 김익두 역, *민족연극학*, 신아, 1992.

[21] 로제 카이와, 이상률 역, *놀이와 인간*, 문예출판사, 1994.

저 자 소 개

이 기 호(Ki-Ho Lee)

정회원



- 1996년 2월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연극학과(문학사)
- 2001년 2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연극학과(연극학석사)
- 2005년 2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연극학과(박사수료)

▪ 2010년 3월 ~ 현재 :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연출, 연기, 연극학, 축제연출